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2019문화기반시설 현황

서귀포시가 제주시 앞질러... 지표 개선은 과제

작년 기준 박물관·미술관 등 서귀포시 총 69개로 더 많아

제주 연평균 관람인원 상위 전문직원 수·유료 관객률 등 공간의 질 가늠 지표는 하위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화기반시설 순위가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내놓은 2019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가 제주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공·사립 미술관을 제외하면 서귀포시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공간별로 제주시와 그 숫자가 같거나 더 많았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전문 인력 확보 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2018년 시설 수 동일했지만 지난해 역전=2017년 발간된 전국 문화

기반시설 총람에서는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합친 문화기반시설이 제주시 63개, 서귀포시 62개였다. 2016년에는 제주시 65개, 서귀포시 61개로 차이가 더 벌어져 있었다. 이 수치는 2018년이 되면 제주시 63개, 서귀포시 63개로 동일해지고 2019년에 이르러 제주시 66개, 서귀포시 69개로 역전되는 일이 생겼다.

2019년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서귀포시는 공공도서관 11개, 박물관 36개, 미술관 12개, 문예회관(서귀포 예술의전당) 1개, 지방문화원 1개, 문화의집 8개였다. 제주시에 비해 관광 도시 특성이 강한 영향인지 박물관이 4개, 미술관이 3개 더 많았다. 반면 문예회관은 제주시보다 1개, 문화의집은 3개가 각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에는 도심에만 관람객 접근성이 좋은 공립미술관 3개(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가 가동되고 있는 등 문화 인프라

가 탄탄한 편이다. 과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화 격차'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공립이 아니더라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는 인구 대비 많은 수의 시설이 흩어져 있고 관광지 특성 상 연 관람인원도 전국 평균을 넘는 만큼 시민 체감도를 높여려면 운영의 전문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2019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도 이를 방증하는 지표가 제시됐다.

▶문화의집 최다에도 프로그램 수 적어=박물관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를 합쳐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가 2만2873점이었지만 학예직원 수는 1.51명으로 전국 평균(3.42명)에 못 미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박물관 평균치(2.61명)도 밑도는 실정이다. 미술관도 상황이 비슷하다. 1개관 당 평균 학예직원 수가 전국 평균 3.2명인데 비해 제주는 1.48명에 머물렀다. 다만 박물관과 달리 도내 공·사립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243점으로 전국 평균 710점의

절반도 안됐다. 공공도서관도 1개관 당 평균 사서직원 수가 3.36명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4.37명)에 닿지 못했다.

문예회관은 시설 당 평균 공연일 수, 전시 일수가 전국 상위를 달리고 있지만 유료 관객률은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유료 관객률은 수도권 26.14%, 지방 24.29%였는데 제주 3개 문예회관 유료 관객률이 13.58%였다. 그나마 제주지역 문예회관 당 전문직원 수는 5명으로 수도권(10.55명)보다는 낮았지만 지방 평균(4.6명)은 웃돌았다.

문화원은 도내 1개관 당 평균 회원 수(789명)와 직원 수(4.5명)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연간 예산액 대비 자체자금 비중은 3.44%로 전국(평균 18.83%)에서 가장 낮았다. 문화의집은 제주시 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1개관 당 평균 운영 인력수 1.37명(전국 평균 2.16명), 총 프로그램 수 6.2개(전국 17.9개), 동아리 수 0.4개(전국 6.5개) 등 지표가 열악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난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송별제. 코로나19 여파로 음력 2월 14일 영등굿 송별제 취소 등 무형문화재 전승 행사가 '잠시 멈춤'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잠시 멈춤'

3월 8일 칠머리 영등굿 취소
송당마을 영등제도 중단기로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문 닫아

코로나19 여파에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이 '잠시 멈춤' 상태다. 음력 2월 치러지는 영등굿(영등제)이 잇따라 취소됐고 제주도가 운영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관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기한없이 휴관에 들어갔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력 2월 14일인 양력 3월 8일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영등송별대제를 취소했다.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지난달 24일(음력 2월 1일) 제주시 사라봉 영등굿전수관에서 환영제를 열었지만 송별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자체를 요청한 문화재청과 협의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추후 문화재 공개 행사를 통해 영등굿 시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배 중단 제주 개신교회
지난 1일 165곳까지 늘어

일요일인 지난 1일 예배를 중단한 제주지역 개신교회가 사전 전수조사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도내 개신교 시설 420곳에 대한 현황 파악 결과 개주시 118곳, 서귀포시 47곳 등 총 165개 교회가 예배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지난 29일 제주도가 실시한 전수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전승되어왔다. 음력 2월 1일 환영제 때는 배의 주인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들과 모여 굿을 하고 송별제에는 어업관계자와 해녀, 그밖의 신앙민들이 참석해 하루종일 큰굿을 벌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당마을제 의식 재현 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영등제를 취소했다. 문예재단은 2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송당마을 영등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송당마을 영등제는 중산간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등굿으로 아진제(얕은굿)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영등제 날짜는 음력 2월 13일로 올해는 3월 7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관들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 상태다. 휴관 중인 전수관은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자전시관,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성암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등 5곳이다. 전선희기자

공립박물관·미술관 일제히 문 닫는다

코로나19에도 정상 운영해온
민속자연사박물관 휴관 결정
7개 공립미술관·문예회관 등
휴관 기간 무기한 연장기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무기한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람객 안전보장을 위해 3월 2일부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휴관한다"고 밝혔다.

제주를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이면서 공영 관광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대부분의 공립 문화기반시설이 임시 휴관을 결정하는 중에도 '관광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관람 의무화를 조건으로 종전대로 운영해 왔다. 박물관 관계자는 "제주지역 세

번째 확진자 발생 등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임시 휴관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박물관은 실내 전시실을 제외한 야외 전시장은 개방한다.

도내 다른 공립박물관들도 잇따라 문을 닫는다. 2일 휴관 결정을 내린 곳은 제주돌문화공원(야외 전시장은 관람 가능)과 해녀박물관이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도 지난달 28일에 3월 2일부터 9일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휴관 소식을 알렸던 제주도립미술관 등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체 7곳도 재개관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을 연장

했다. 제주도립미술관을 비롯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과 서귀포시 지역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이다. 저지리 공공수장고와 서귀포시 서북기념관도 휴관 기간을 늘렸다.

제주도문화진흥원 역시 지난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문예회관 대·소극장과 전시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연장했다. 도 문화진흥원은 3월 3일부터 별도 알림이 있을 때 까지 휴관을 연장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9월 제주 대한민국독서대전 준비 본격

제주시 신산공원 일원 개최
전국 공모로 총괄감독 선임
양성혁씨 10월말까지 활동

제주시가 9월 대한민국 독서대전 총괄감독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 관련 행사다. 지난해 제주 개최를 유치한 제주시는 독서의 달인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신산공원 일원에서 독서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총괄감독 선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사항으로 제주시는 올해 대



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집했다. 그 결과 양성혁(사진) ㈜씨포스트 제주 대표이사

를 총괄감독으로 선임했다. 활동기간은 3월 2일부터 10월 31

까지다. 총괄감독은 독서대전의 기본 방향, 행사프로그램 추진계획,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된 기획안 제시와 추진협의회·추진단 자문과 의견에 대한 프로그램별 세부사항 보완 등 행사기간 중 축제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성혁 총괄감독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제주돌문화축제 연출감독으로 선정됐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산일출축제 총괄 감독을 지냈다. 전선희기자



**확장
이전**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대륙종합농기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덤프+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SWISS MADE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정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전기총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총 정부지원(보조금)
농협농자 대상기종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300m)

판매/AS문의
064) 767-3430